새로운 피조물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신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옛 것(old)들과 비교하여 "새"(new)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곧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새 계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 먼저 "새로운 피조물"(New Creature)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면서(엡 2:1)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엡 2:12)라고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인가? 고린도전서 1:30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요한복음 1:12-13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하였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어야 하고,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17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것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새로워진 것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몸이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이 된 것인가? 우리의 혼, 마음이 새로워진 것인가?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졌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르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영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으로 바꿔주신 것이다. 새로운 영, 바로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거듭난 영이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영(spirit)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이다. 에스겔 36:26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네 안에 새 영을 넣어둘 것이다(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는 뜻이다. 그래서 죄로 죽은 영을 가진 우리가 새 영을 갖게 된 것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새 영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고 사랑하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 11:19-20**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a new spirit)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 영을 통해 교통하시고 인도하셔서(고전** 2:10-12)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게 전달하여 우리로 몸소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Identity)**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으로의 구체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진리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앞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생각해온 대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느낀 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알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43:18에서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런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내가 새 영으로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야 한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야 43:25에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에 연연하며,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또한 죄의 습성과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상처와 죄는 기억하고, 캐내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 잊고 지워버릴 때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갔어! 다시 거기에 얽매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 그분은 또한 새로운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말해주면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고백에 맞는 변화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며 구체적인 출발점이다. 이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 하루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나를 바라보면서 새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새로운 피조물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적 양식을 섭취하며 자라가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영이 자라며 성숙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하셨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먹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말할 때 우리의 영은 자라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해줄 때 우리는 자랄 수 있다. 에베소서 4:15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즉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해줌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해주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한다. 에스겔 3:3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먹어주라는 것이다. 귓전에 흘려보내지 말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내 기호에 따라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배와 창자 속 깊은 곳까지 채우며 먹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영의 깊숙한 창자로부터 긍휼과 사랑이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전자 성경이나 인터넷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성경책을 찾고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대언하여 사랑으로 말하며, 영 깊숙히 채워 넣으라.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음성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심을 경험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5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나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뜻하는 현재완료형으로 "그가 친히 계속적으로 말씀해오시기를(He Himself has said)"라고 하였음에 유의하라. 12:25에서도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Him who is speaking"으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에베소서 4:21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지금도 계속적으로 듣고 있고(have heard Him),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has been taught in Him) 한 것이다.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사역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듣고 자라고 먹는 훈련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제자 훈련이었다. 개인 명상과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감하는 결과는 오늘날 제자 훈련이 가장 잘 된 교회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며 각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삶이 변하지 않는 제자 훈련이 무엇 때문인지, 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당사자는 바로 나부터이다. 내 영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4)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혼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의 몸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다운 몸이 될 수 있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2-13)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나이다. 내가 결단하고 내 몸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혼,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하셨다. 여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자는 너희, 바로 나이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고, 또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몸, 곧 육체와 나의 혼, 곧 마음은 내 자신이 새롭게 되도록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과 마음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기쁨과 온전함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혼이 새롭게 성숙해지는 것이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고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칭송을 받을 만한 것, 바로 그것들만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 정결과 공의와 겸손의 마음을 품도록 부단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떼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고후 4:6) 계속적으로 비취신다고 하셨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상처와 우울증, 낙심과 좌절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누구든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포기치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따라서 신분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 몸과 혼과 영이 다 새로운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새 언약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새로운 피조물(New Creature)"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개개인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New Covenant)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다. 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처음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언약인 것이다.

이같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Old Covenant)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새 언약(New Covenant)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예레미야 31:31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옛 언약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새 언약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6:16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도 동일하다. 요한계시록 21:3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하였고 또 21:7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의 핵심은 동일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신분이고 특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과거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신 7:7-8)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새 언약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피로 세우신 언약은 창세기 15:12-21에 처음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케 하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브리함은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를 준비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은 서로 마주하여 놓는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 당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제물들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하여 놓고 그 쪼갠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풍습이 있었다. 그 뜻은 만약 둘 중에 어느 한 쪽도 계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으로 소위 저주, 죽음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식이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쪼개진 제물들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초부터 이 언약은 너와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너의 약속 이행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언약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즉시 약속 불이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걸어가시는 것이다. 내가 쪼개져 죽음으로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 예수님의 피의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었던 것이다.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새 언약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불순종과 언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구원도 안전하고 확고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말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일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방 땅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였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할 일은 나를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되게 함이니라”가 중요하다. 왜 그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언약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다운 백성이 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피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세우신 피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새 언약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었다. 똑같이 피로 세운 언약이지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인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일까? 그것은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그런데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일 따름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인간이 죄 사함을 받겠다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용서함 받기도 전에 피흘려 죽었으니 어느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죄 없는 인간, 곧 하나님만이 대신 피를 흘릴 수가 있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도 참 인간이 되시지 않고서는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모든 죄인들이 받을 죄값,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당하시고 피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시므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입증하시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피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의 피인 것인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인 것이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피가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 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이다. 우리의 불순종과 배반으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언약의 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 지금 제 3성전을 세우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행하고자 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니 스스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옛 언약은 예수님을 내다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지만 새 언약은 실체이고 실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동시에 영원히 효력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옛 언약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보며 몸소 체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실패한 자들이었고, 옛 언약의 피도 그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억지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돌비가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시니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죄 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는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고 있는가?

새 언약 (4)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고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떡과 잔의 의미를 말씀해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 22:15)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이제야말로 그림자로서의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하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의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역사적인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써 구원과 속죄함을 받고, 어린양의 고기나 무교병과 쓴 나물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셨다. 죄 없는 참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잊지말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마 27:51; 히 10:19-20)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과연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젖을 먹고 있는가?

특별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고전 11:25)라고 하셨다. 잔,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다. 주님의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10:16-18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사야 43:25에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억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이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억치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며, 자숙한 다음에 정리되면 나중에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이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기쁨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한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되었다. 갈기갈기 찢겨진 교단과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가 아닌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 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엡 4:3)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연합 운동이다. 또한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세상 앞에 입증하는 비결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다.

새 계명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새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것이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다. 옛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7-40).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다. 그러면 신약에는 옛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요일 2:7)이라고 하면서 새 계명이 옛 계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사도 요한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요일 2:8)고 말씀하고 있다.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새 계명을 쓰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명령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고 계명이지만 옛 계명과는 다른 점이 있기에 내가 새 계명을 이제 쓴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셨고 그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요한일서 4:21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계명"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계명을 뜻한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인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드러낼 자도(요 13:35)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곧 신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새 계명은 단순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특히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이 된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새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고, 또한 그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이고, 신자들과 교회들이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새 계명인 것이다.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리 불신자들을 위해 구제와 선교와 각종 사회 사업과 문화 사업들을 거창하게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돕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종종 우리는 자기 가족을 챙기지 않고 집밖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더 고매한 인격자로 치세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면서 교회 밖의 구제에 더 열을 올린다. 자기 부모님은 굶든지

병들든지 내버려두면서 독거 노인, 노숙자들을 돌본다고 난리법석이다. 지나치게 내 식구만 챙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자기 식구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만 열을 내는 것은 헛된 명예심과 허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갈 6:10) 해야 한다. 불신자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행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없는 중에도 퍼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이므로 선행을 베풀 때 먼저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와 어려움을 살펴 도와주라는 것이다.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살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새 계명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그러나 옛 계명에 의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기준이 내 몸,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아끼고 돌보는가? 웰빙과 다이어트 열풍과 몸짱이 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심지어 성형 수술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관심과 열정과 투자를 내 이웃들에게도 베풀라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까워 하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죄성을 지닌 인간은 본질상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옛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새 계명은 어떠한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니 옛 계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의 본래적인 죄악된 모습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같은 수준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심장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5:5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였다. 여기 부어졌다는 동사는 현재완료형으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마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영을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꺼내놓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베푸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부어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또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명령이다.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명령인 것이지 우리의 허락과 동의와 형편에 따라 안 지켜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동시에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깔린 명령이다. 만약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명령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계명을 능히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신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할 때이다. 이 사랑이 회복되고 실천될 때 우리의 예수님의 참 제자됨이 세상에 밝히 증거될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세상과 다름이 입증되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새 계명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롬 5:5)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꺼내놓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감정과 생각과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사랑할 마음이 안 나는데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과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수긍되어야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의 느낌에 부어져서 사랑하고픈 감정이 나야만 행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니다. 우리의 머리나 가슴이나 혼에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heart)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동일한 심장(heart)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 여기에 언급된 마음(heart)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고픈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들 때까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심장)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동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부어진 것도 모르고 내가 가진 감정과 느낌만을 가지고 내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새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만 그런가? 다들 이렇게 사는데? "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며 핑계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 알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바로 에베소서 3:17-19의 기도이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우리 심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더욱 더 차고 넘치게 된다. 실천하지 않고 내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만 확신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고 몸에 익숙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새 예루살렘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셨고,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비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21:1에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말하면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졌고,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한 봤다고 하였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이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은 각기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1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라고 하였고, 20:11에서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하였다. 지금의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으니 말 그대로 이 지상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지상이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이 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르친다. 그러나 과연 이 지구촌이 낙원이 되어가고 있는가? 인간들만 악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들도 오염과 부패함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고 하였으니 지구 표면의 70%을 차지하는 바다가 없어진다면 지금의 지구가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지금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10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12-13절)고 하였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로써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후서 3:7에 의하면 이전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29에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역시 하늘의 대변혁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현재의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로 멸망하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

신다는 하나님의 새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불로써 지금의 하늘과 땅이 멸망될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재앙이나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날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벧후 3:12)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그곳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한 빛으로 제시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22-23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를 곳(you will come to)"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you have come to)"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시제가 아니라, 현재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이른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언제 우리가 가는 곳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히브리서를 쓴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장차 그 곳에 이를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곳에 이른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성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됨과 같은 원리와 사실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결단코 현재의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는다. 지상에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겠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거부하는 자들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분이 내 안과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회복 운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행하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Back to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입성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말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지상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제 3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불신 거역하고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그 성과 성전 건축과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이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거기에 속한 백성과 시민이 되어야 거기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12:23에 언급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가 각기 속한 교회의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한 총회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장자들이고 그들의 모임인 총회와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지상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기록한 교회와 새 예루살렘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